

보도 시점	<전매체> 8.27(수) 14시	배포	2025.8.27.(수)
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제조혁신기획실	책임자	실장	이찬형 (044-300-0920)
		담당자	주임	김소원 (044-300-0926)
배포 부서	소통홍보팀	책임자	팀장	김민철 (044-300-0720)
		담당자	주임	김셋별 (044-300-0721)

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, 베트남에서 K-스마트공장 글로벌 진출 본격 추진

- 한국 스마트전문기업 36개사 참여, 스마트공장 혁신 기술 선보여 -
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(단장 안광현, 이하 추진단)과 코엑스(대표 조상현)는 8월 27일(수) 베트남 호치민(빈중무역센터전시장)에서 '제2회 베트남 스마트공장 엑스포'(25.8.27~29)를 성황리에 개막했다.
- 이번 엑스포에는 국내 우수 기술 공급기업의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해 한국 스마트전문기업 36개를 포함하여 총 101개 기업이 208개 부스 규모로 참여하여 베트남 제조업계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 다양한 스마트공장 기술과 자동화 솔루션을 선보인다.
 - 추진단은 행사기간 동안 해외 바이어와 비즈매칭 및 수출상담회를 열고, 베트남 현지 기업들과의 기술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 기회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.
- 아울러 추진단은 한-베트남 간 스마트제조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고,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포럼과 협력회의를 개최한다.

- 28일에는 양국 정부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'글로벌 스마트 제조혁신 포럼'이 열려 각국의 스마트제조 정책과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,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
- 또한, 베트남 스마트공장 ODA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'베트남 데모실증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'을 주제로 유관기관 협력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.
- 안광현 단장은 "현재 전 세계가 인공지능(AI) 기반 지능형 제조 혁신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으며,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"며,
 - "추진단이 지금까지 3만 5천 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베트남 현지에 전수해 양국의 상호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"고 밝혔다.
 - 이어 "이번 엑스포가 단순한 기술 전시를 넘어, 한-베트남 간 추진중인 제조혁신 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한 층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"이라고 덧붙였다.

□ 행사 개요

- (행사명) 제2회 베트남 스마트공장 엑스포
- (행사기간 및 장소) '25. 8. 27(수) ~ 8. 29(금) / 베트남 빈증무역센터 전시장
- (참가기업 현황) 총 101개 사 208개 부스

구분	한국	해외(베트남 포함)	합계
업체수	36	65	101
부스수	41	167	208

□ 행사 세부 프로그램

- ① (전시관 운영) 「베트남 스마트공장 엑스포」 개최를 통한 국내 우수 공급기업의 기술 소개 및 우수사례 전시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
 - (부스운영) 국내 우수 공급기업의 제품·기술 홍보를 위한 부스를 운영하여 현지 인지도 제고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확보
 - (비즈매칭) 국내 공급기업과 베트남 현지 투자자 간의 1:1 수출 상담 및 네트워킹을 통해, 해외시장 진출 및 기술·제품 수출 등 성과창출 지원
 - (도슨트 투어) 행사기간 국내·외 참가기업 부스 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참관객 방문 유도 및 홍보 확대
- ② (글로벌 포럼개최) 정부, 산업계 등 유관자와 엑스포 방문객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국의 스마트제조 기술현황 공유 및 정책 시사점 도출
- ③ (한·베트남 ODA협력회의) 베트남 스마트공장 ODA사업(‘26년~’29년, 116억) 관련, 한·베 수행기관간 주요현안 공유 및 향후 추진방향 등 논의
- ④ (디브리핑 간담회) 추진단 주재 하의 전시회 참가기업 간의 전시회 성과·기술 공유 및 향후 글로벌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발굴